

글자람 틀

누구의 이야기든,
하나의 세계가 됩니다

상상은 글이 되고, 글은 그림·게임·영상이 됩니다

앞뒤가 맞는 글
AI가 틀린 곳을 찾고
고칠지는 사람이

그림마다 같은 얼굴
생김새를 글로 정해
수백 장도 같은 인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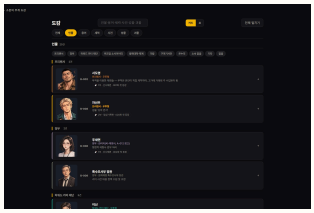
금방 나오는 결과
한 문단이 10분 만에
그림 7장으로

누구나 바로 시작
메모장과
AI 채팅만 있으면

2026 AI 활용 사례 공모전 · 생활 속 AI 활용 · somunmuge.com/teul · 유튜브 @geuljaram

한눈에

글 한 편에서 나온 것들



인물 정리표



틀린 곳 고치기



장면 그림



그림 스타일 바꾸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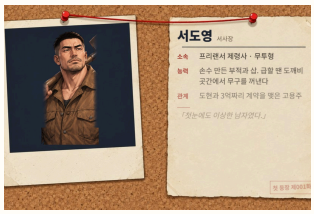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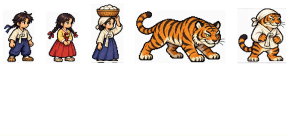
그림 소설

글 한 편

일기 · 가족 이야기 · 동네 전설 · 동화 · 소설



게임



게임 캐릭터



캐릭터 옷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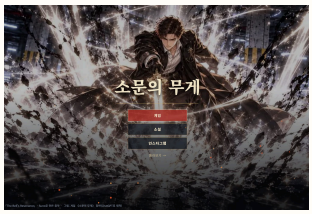
단체 사진 그림



분위기별 짧은 영상



그림책



사이트·유튜브

가운데 글 한 편에서 둘레의 열두 가지가 나왔습니다. 모두 실제로 만든 것입니다. 앞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예시는 12쪽에 모았습니다.

같은 틀

어떤 글이든, 순서는 하나

① **글을 씁니다.** 한 문단이어도 됩니다.
② **AI가 글에서 인물·장소·사건을 뽑아 정리표를 만듭니다.** 이 문서에서는 이것을 「설정 사전」이라고 부릅니다. AI가 이야기를 헷갈리지 않게 하는 기준입니다.
③ **정리표와 맞지 않는 곳을 AI가 찾고, 고칠지는 사람이 정합니다.**
④ **정리표에 적힌 생김새대로 AI에게 그림을 부탁합니다.** 그림을 부탁하는 글을 「주문서」라고 부릅니다.
⑤ **받은 그림으로 게임과 짧은 영상을 만듭니다.**

아래는 길이와 종류가 다른 글 세 편으로 직접 해 본 예시입니다. 일기, 가족 이야기, 동네 전설, 가게 이야기, 수업 시간에 지은 이야기, 어르신의 옛 기억에도 같은 순서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.



① **출근길 한 문단** — 일상에서 본 장면 하나



② **전래동화 「해님 달님」** — 내가 쓰지 않은 옛이야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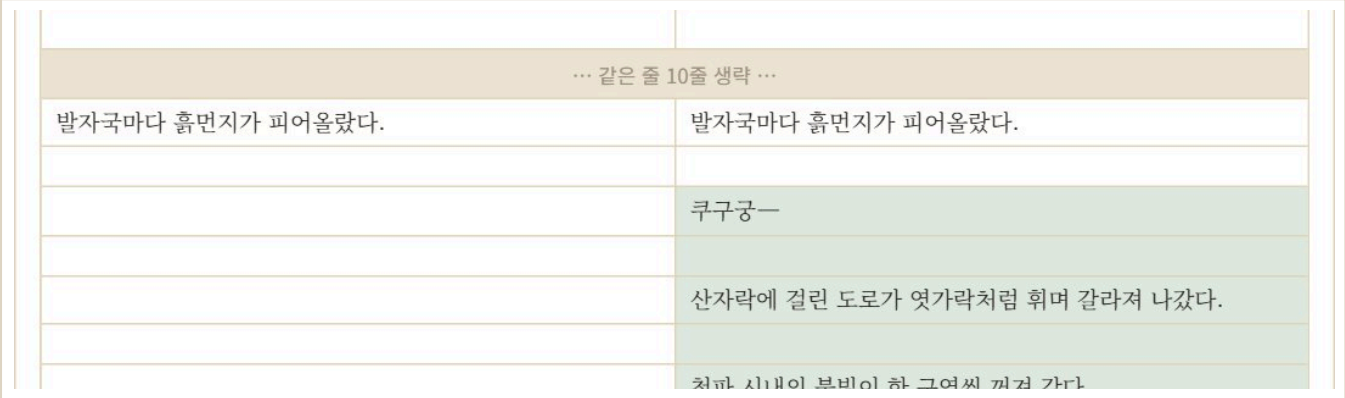
③ **웹소설 70화 《소문의 무게》** — 글에서 게임까지

글 다듬기

긴 글일수록 AI가 틀립니다

이 작업은 원고를 고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. AI 채팅창에 긴 글을 통째로 맡기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.

채팅창에 그냥 맡기면	글자람 틀에서는
없는 설정을 그럴듯하게 지어냅니다	정리표(설정 사전)를 기준으로 AI의 답을 모두 대조합니다
대화가 길어지면 앞 내용을 잊습니다	글과 정리표를 파일로 남겨 두고, AI가 언제든 다시 읽게 합니다
한 문장만 부탁해도 문단 전체를 AI 말투로 바꿉니다	AI는 틀린 곳만 찾고, 고칠지는 작가가 한 문장씩 정합니다
AI 하나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	여러 AI에게 같은 글을 보내고, 맞는 지적만 고릅니다



고친 곳만 비교하는 화면 — 왼쪽은 고치기 전, 오른쪽은 고친 뒤. 고친 줄만 색이 칠해집니다.

실제로 잡은 것들

날짜
"석 달 전"이 날짜로 따져 보니 열세 달 전

앞 화와 다른 회상
18화엔 맨손으로 부쉈는데 24화 대사엔 "망치로"

아직 모르는 걸 아는 인물
13화에서 도현이 아직 못 본 거울을 미리 알아챔

물건 자리
청동 등잔이 11화와 17화에서 다른 곳에

겹치는 버릇
두 인물이 똑같이 묵주를 만짐 → 한 명은 헛기침으로

가만히 서 있는 인물
장면에 있지만 말이 없던 인물에게 반응 대사 38곳

AI가 틀린 경우도 걸러 냅니다 — 22화의 "시루떡"을 AI가 설화 상식대로 "메밀묵"으로 고쳤지만, 43화로 이어지는 복선이라 되돌렸습니다. 국산 AI가 "원고에 없다"고 한 2건도 원문 전체와 대조해 보니 있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고치기 전에 늘 전체 원고를 검색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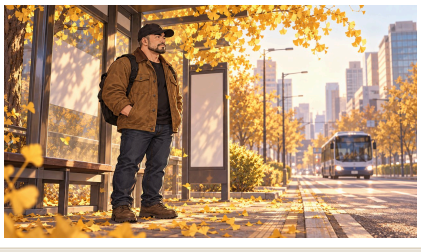
웹소설 70화 전체를 이렇게 고쳤고(수정 기록 1,400건 넘음), 게임 대본 406장면은 AI 세 개가 장면마다 함께 검토했습니다. 그림도 같습니다 — 주문하지 않은 인물이 끼어들거나 같은 인물의 얼굴이 바뀌면 그 한 장만 다시 주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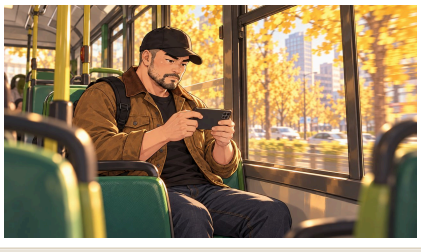
사례 ①

출근길 한 문단

"버스 창밖에서 아들이 친구 셋과 걸어가다 나를 보고 손을 흔들어 줬다.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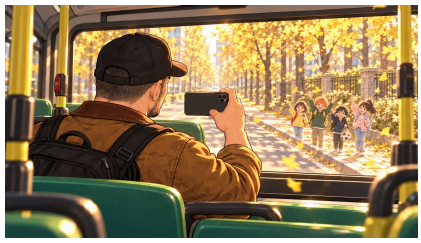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작가가 출근길에 실제로 본 장면을 한 문단으로 적었고, AI가 이 문단을 그림 7장으로 바꿨습니다. 약 10분이 걸렸고, 같은 인물로 게임 캐릭터도 만들었습니다. 아들은 실제 얼굴이 아니라 작가가 만든 그림 캐릭터이고, 친구 셋은 실제로 없는 인물입니다.

그림 스타일 바꾸기

한 줄만 바꾸면 다른 그림이 됩니다

장면과 인물은 그대로 두고, AI에게 그림을 부탁하는 글에서 "그림 스타일" 한 줄만 바꿨습니다.



웹툰



학습만화



동화 그림책



흑백 만화



해님 달님 · 학습만화



웹소설 장면 · 학습만화

사례 ②

전래동화 「해님 달님」

쓸 권리가 있는 글이라면 내가 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. 저작권이 없는 옛이야기 한 문단으로 그림책 그림과 게임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.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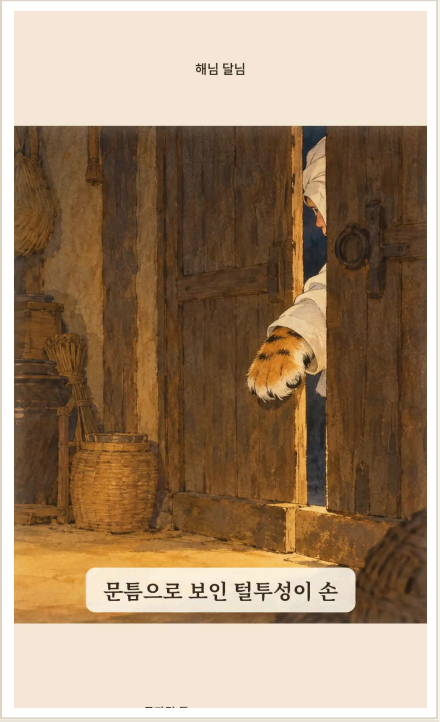




분위기 바꾸기

같은 이야기, 다른 영상

"해님 달님으로 분위기가 다른 짧은 영상 세 개를 만들어 줘"라고 하면, 목소리·자막·음악·화면이 분위기에 맞게 바뀐 휴대폰용 세로 영상(릴스)이 나옵니다.



동화 낭독 영상 36초 · 만드는 데 58초



공포 예고편 영상 32초 · 만드는 데 63초



마을 축제 광고 영상 22초 · 만드는 데 35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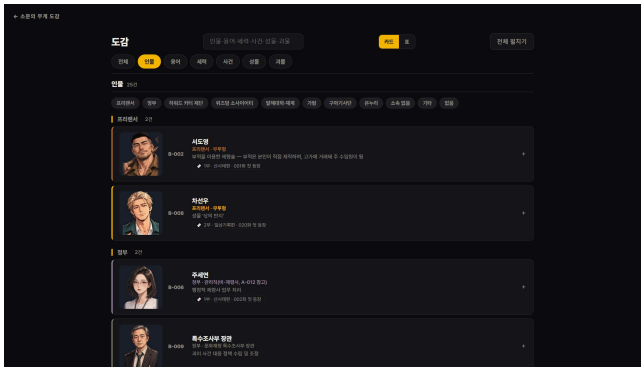




사례 ③

웹소설 70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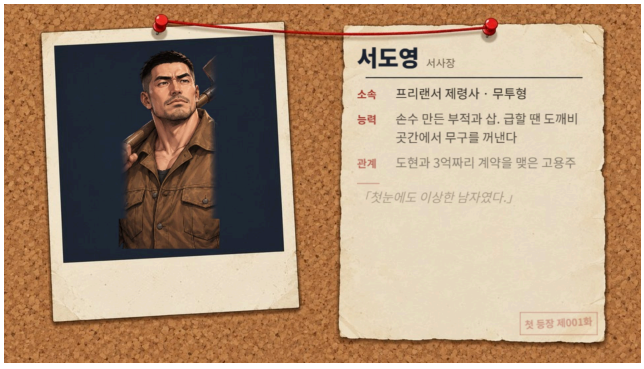
퇴근 후 취미로 쓴 웹소설(종이책 약 2권 분량)로 글에서 게임까지 모든 단계를 해 봤습니다.



인물 정리표 인물 25명 · 설정 66가지 · 장면 221개



틀린 곳 고치기 AI가 찾고, 고칠지는 작가가 정함



그림으로 보는 소설 인물 소개 카드



그림으로 보는 소설 대사 장면



어디서나 바로 해 볼 수 있는 게임 — 원작 70화를 따라갑니다. 전투 38판, 대사 3,500줄, 끝까지 플레이하는 데 약 8시간

게임으로

이야기가 움직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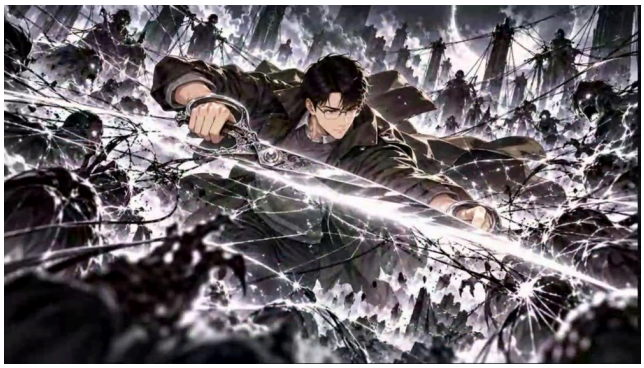
실제 게임 화면입니다. 인물마다 결정적인 기술을 쓰는 장면, 갈아입을 수 있는 옷, 단체 사진 그림이 있습니다. 게임 장면 그림 840여 장을 같은 인물로 맞췄습니다.



필살기 결정적인 기술을 쓰는 순간



필살기 장면



필살기 장면



전투 화면



캐릭터 옷 16가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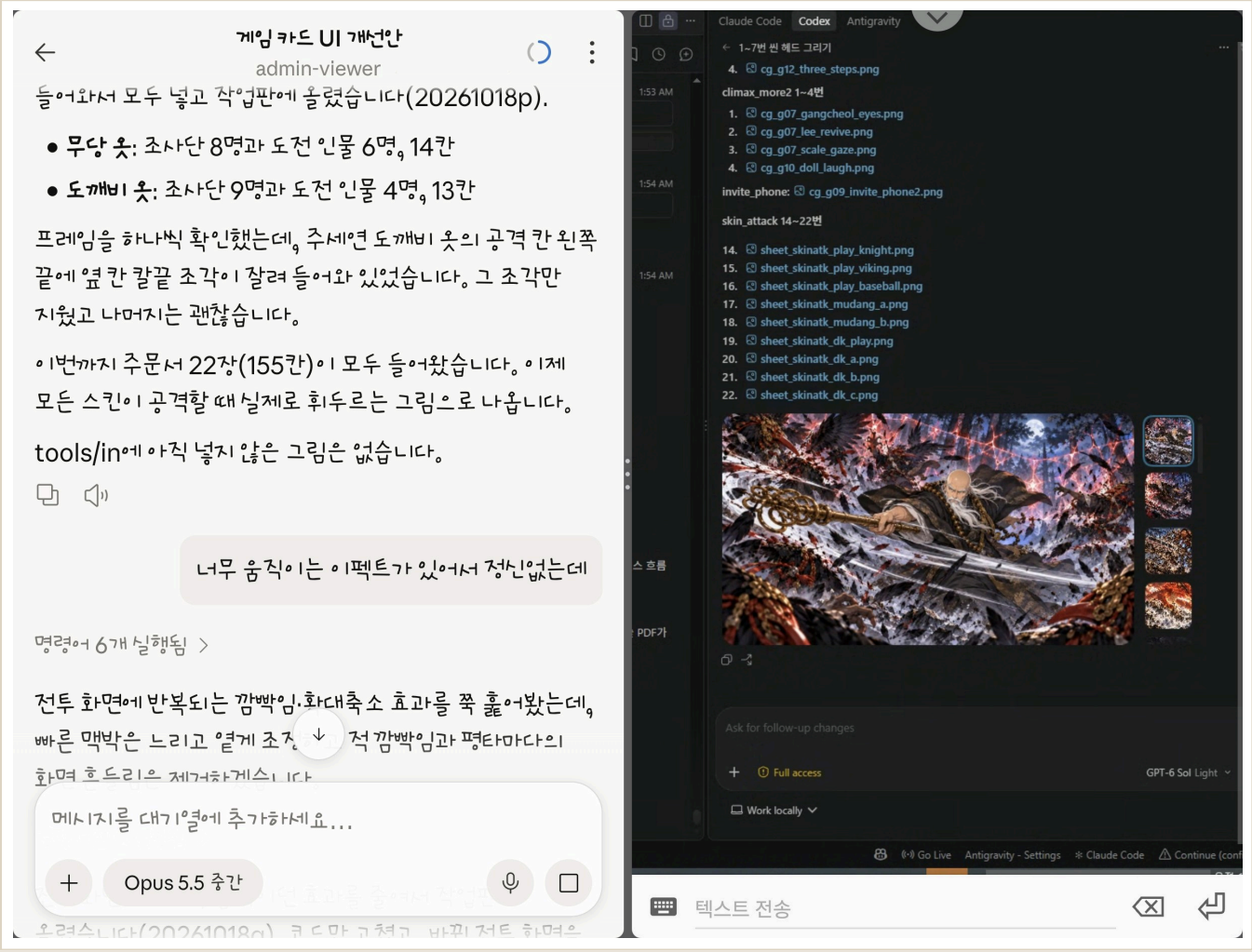


단체 사진 그림

어디서든

휴대폰 하나로

출퇴근길에 접는 휴대폰 화면을 반으로 나눠 작업했습니다. 왼쪽에서 AI에게 일을 시키고, 오른쪽에서 나온 그림을 확인합니다.



Claude Code의 원격 제어 기능으로 집 컴퓨터를 휴대폰과 연결해 두면 밖에서도 부탁하고, 확인하고, 고치는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. 그림 한 묶음을 몇 분 만에 받습니다.

응용

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

같은 정리표와 그림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. 아래 그림은 예시로 만든 것입니다.



소리책 잠들기 전 듣는 동화, 눈이 불편해도 듣는 책



등장인물과 대화 정리표에 없는 말은 하지 않게



독서 활동지 사건 순서 맞추기, 생각해 볼 문제



기념품 스티커, 엽서, 열쇠고리



여러 나라 말 같은 이야기를 각자의 말로



어르신 그림 자서전 말로 들려주면 AI가 받아 적습니다

교과서에 나오는 **저작권이 끝난 고전 문학**도 같은 순서로 수업용 그림 소설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.

따라 하기

당신의 이야기로

1단계 — 누구나
메모장과 AI 채팅만 있으면 됩니다. 글을 정리하고 고친 뒤, 그림과 카드뉴스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.

2단계 — 프로그램을 대신 짜 주는 AI를 더하면
그림 정리를 자동으로 하고, 그림으로 보는 소설과 게임, 짧은 영상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.

1. **정리표 만들기** — AI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"이 글을 읽고 등장인물(생김새·나이·소속), 용어, 사건, 날짜를 목록으로 뽑아 줘. 글에 없는 내용은 쓰지 마."
2. **틀린 곳 찾기** — "고쳐 쓰지 말고, 정리표와 맞지 않는 곳만 원문 그대로 인용해서 찾아 줘." 같은 말을 서로 다른 AI 둘 이상에게 하고, 고칠지는 내가 정합니다.
3. **그림 부탁하기** — "등장인물은 ○○ 한 명만. 생김새: (정리표 그대로). 장면: (한 줄). 그림 스타일: (웹툰·학습만화·그림책). 글자는 넣지 마."

지킨 것
글은 사람이 쓰고, 고치는 것도 사람이 정합니다. 쓸 권리가 있는 글만 썼고, AI로 만든 그림과 음악은 출처를 밝혔습니다. 아이의 실제 얼굴과 정보는 넣지 않았습니다.

아직 사람 손이 필요한 곳
AI가 만든 그림을 옮겨 붙이는 일, 음악 만들기, 입력 글자 수에 제한이 있는 AI, SNS에 올리는 일은 아직 직접 합니다. 이 과정이 한곳에서 이어지는 도구가 생기면 더 많은 사람이 2단계까지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.

somunmuge.com/teul
사례와 영상을 보고, 따라 하기 양식 세 가지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유튜브 @geuljaram